

**미디 콤포넌트  
개발**  
(주) 금성사

금성사(대표 : 이헌조)는 국내 최고급·도료인 매티로(Matiro) 도료를 사용하고 중후한 디자인을 채택한 정격출력 120W급의 미디콤포넌트(모델명 F-530DLX)를 개발했다.

동사가 총 5억원을 투입, 9개월만에 개발·시판에 나선 이 신제품은 AV시스템 시장을 겨냥한 자사 주력 제품으로 멀티 FIP디스플레이를 채용, 음의 시각적 감상효과를 높였다.

이와 함께 1비트 방식의 DAC의 CDGP를 채용, 음질을 대폭 개선시켰으며 영상가요 반주기능과 최대 20곡까지 프로그램 기억연주가 가능하며 3웨이 4스피커 방식의 돌보이형 스피커시스템을 채용, 풍부한 음량을 재현할 수 있다.

**수퍼 I/O  
컨트롤러 개발**  
금성일렉트론 (주)

금성일렉트론(대표 : 문정환)은 각종 기능을 통합해 I/O컨트롤러 PRIME 2 C시리즈를 개발했다.

동사가 이번에 개발한 「GM3004C」는 기존 프라임2 시리즈 「GM3004」가 갖고 있는 FDC(플로피디스크 컨트롤러), IDE(하드디스크연결), 2개의 시리얼포트, 프린터포트 외에 게임로직을 하나의 칩에 통합, 설계를 대폭 간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기존 게임용 조이스틱 사용에 필요한 게임포트를 위해 갖춰야 했던 타이머 IC와 TTL 등 주변로직회로를 장착할 필요가 없는데다 컴퓨터의 재부팅을 위한 「리셋」을 자체 지원, 인버터TTL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동사는 이와 함께 기존에 2칩으로 제공하던 라인 드라이버/리시버 IC를 원칩화한 「GD75232」를 함께 공급중인데 이에 따라 「프라임2 C」와 2개의 「GD75232」 등 3개의 칩만으로 수퍼 I/O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TDX용 소형 원격교환장치  
품질인증 획득,  
KT에 첫 공급**  
금성정보통신 (주)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이 원격지의 소규모가 입자군을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격교환장치를 개발, 최근 한국통신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형 원격교환장치(TDX-SRSS)는 최대용량 256회선으로 모국교환기인 TDX-1B와 T1 E1급 전송로로 연결, 원격운영되며 농어촌 도서지방 등 소규모가 입자군을 수용하는데 적합하다.

지금까지 소규모 가입자군은 외국에서 도입한 전송로 집선장치(LC)를 통해 전화국교환기와 연결, 운용돼 왔으나 최대용량이 128회선밖에 되지않고 수용된 가입자 회선에 대한 시험 및 자체관리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동사가 이번에 개발한 이 시스템은 특히 가입자 보드없이 모국교 환기와 직접연결, 기존 TDX01B에서의 수용용량을 최대 1.75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

**서비스 기동력  
대폭 강화  
대우전자 (주)**

대우전자(대표 : 배순훈)은 좀더 정확한 서비스와 신속성을 실현키 위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도시의 서비스맨들에게 휴대폰을 지급, 업계의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동사는 특히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대전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달초 10대의 휴대폰을 우선 지급했는데 이는 대전 엑스포 관람객들의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부품 및 서비스 인원들을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비스맨들에게 휴대폰 지급으로 서비스 평균 처리 시간이 3시간이 걸렸던 것이 1시간 이내로 2시간 정도 단축 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 수리를 마친후 고객 집에서 다음 서비스 장소로 이동하려면 고객의 전화를 사용 고객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것을 이제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어 고객의 불편을 덜게 되었다.

동사는 현재 대전 엑스포 타운 4개동에 TV, VTR, 냉장고 등 가전 제품이 전량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엑스포 기간 동안 서비스맨 5명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엑스포 타운에 상주, 서비스 필요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는 상태이다.

TSC제도를 처음 도입한 동사는 기존의 소단위 지역별로 분산된 서비스센터를 광역단위로 묶어 서비스 인력과 장비를 집중시키고 LAN, ARS 등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효율을 크게 늘려왔는데, 이번에 휴대폰을 지급하게 되므로써 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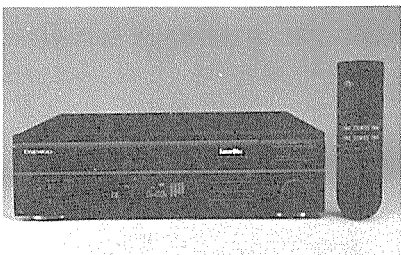
**고급형 LDP  
개발  
대우전자 (주)**

대우전자(대표 : 배순훈)는 국내처음으로 CD전용 트리에를 탑재한 고급형 LDP를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품(모델명 : DMP-5030K)은 길이가 331mm인 LD트리에에 비해 길이가 165mm로 절반에 불과한 CD전용 트리에를 별도로 탑재, CD를 이용할 때는 기존 LD 및 CD 겸용 트레이보다 작동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간편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국내처음으로 LDP에 6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기능을 채용, 가정에서도 가요반주업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노래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제품의 큰 장점이다.

이외에도 이 제품은 CD를 재생할 수 있으며, 본체뿐 아니라 리



모론에도 디지털 서틀기능을 채용하는 등 편리성을 크게 높였고 에코, 마이크믹싱, 음성다중기능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동사는 이 제품 개발을 위해 1년간 약 1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기능강화와 함께 디자인도 고급화시켜 향후 이 제품을 국내시장 및 수출 주력제품으로 삼을 계획이다.

### 부산지하철에 ATM

#### 설치 운영

대우통신 (주)

대우통신(대표 : 박성규)은 부산동남은행을 통하여 부산지하철에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설치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동사는 은행자동화업무 추세에 맞춰 국내 금융권에 판매중인 ATM 기종중 4782-F03 기종 20대를 부산지하철역(남포동, 중앙동, 연산동 등) 8곳에 설치키로 하였으며, 백화점, 관공서 등 12곳을 포함하여 2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동사가 설치한 현금자동입출시스템은 전방 개보수형 ATM으로서 지폐지급방식을 마찰방식으로 채택하여 기기장애를 극소화하고 점외 설치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기의 안전도 및 신뢰도에 만전을 위한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금수요가 늘어나도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확장을 할 수 있어 유지 보수비용이 적은 것이 큰 장점이다.

부산지하철에서 3일 있는 시연식 행사에는 부산지하철공단장, 부산동남은행과 대우통신시스템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부산지하철 무인은행의 서비스업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산지역 시민들은 은행마감 시간 이외에도 은행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현금, 수표 입출금 및 공과금 납부, 쿠폰 및 티켓 발행 등 같은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ATM 스크린의 그래픽 처리를 다양한 동작과 칼라 화면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명방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우통신은 부산지하철 현금자동입출시스템 설치를 계기로 국철역, 백화점 등에 지속적인 판매가 예상되어 향후 시장판도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CATV용 무인송신소

#### 원격제어감시장치 개발

동서전자 (주)

동서전자(대표 : 장기선)가 최근 CATV(종합유선방송)용 무인송신소 원격제어감시장치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LCS-008)은 여러군데의 무인송신소의 각종 기기운용상태를 유인송신소나 방송국에서 컴퓨터조작으로 원격제어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 일반유선전화나 이동무선전화에 모뎀을 사용해 통제실과 무인송신소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무인송신소의 상태를 모니터화면에 전체 또는 1개소를 임의로

선택해 나타낼 수 있으며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모든 운용 상태를 계속적으로 기록 가능하다.

이밖에 무인송신소의 운용상태를 컴퓨터 내부의 HDD(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무인송신소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자동으로 전화선을 이용, 통제실에 알려주는 기능도 채택했다.

저가 잉크젯 프린터

공급

(주) 삼보 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가 OCR판독이 가능한 저가형 잉크젯프린터(모델명 OCR3000)을 개발, 공급을 시작했다.

이 프린터는 어떤 컴퓨터에도 부착할 수 있으며 특수 프린터용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리젝트율을 1% 미만으로 줄여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또 특수카드리지를 사용, 대량으로 인쇄를 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의 바코드 출력도 가능,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동사는 프린터를 출판사·유선방송사 등에 다양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청구되는 MICR를 이용하는 업체, 전자제품 등과 같이 할부로 수급하는 업체·백화점·보험회사, MICR 및 정액OCR를 사용하는 업체 등 지로이용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초절전형

HDD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최근 그린컴퓨터의 핵심부품으로 초절전 기능을 갖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개발,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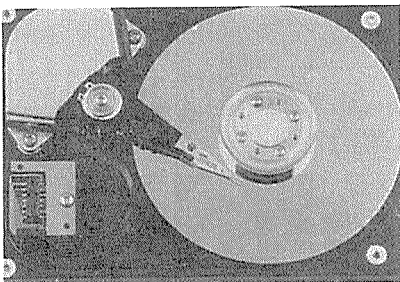
이번에 개발된 HDD는 A4용지 4만5,000장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178메가바이트(MB)와 2개의 디스크로 구성된 356MB 등 2개 모델이다. 그린 HDD로 불리는 이 제품은 전력관리기능을 내장, 1분, 3분, 5분 등 컴퓨터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 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슬립모드로 전환됨으로써 기존 제품의 소비전력 4.4W의 11분의 1수준인 0.4W로 대폭 절감된다.

또 컴퓨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판기의 어떤 버튼이든 누르기만하면 정상으로 전환돼 작동된다.

이와 함께 컴퓨터 초기동작과 과정에서 HDD의 고장 유무를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자체이상 진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특수센서를 지닌 소프트웨어로 HDD와 디스크가 부딪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헤드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보호하고 자체진단후 다시 사용중인 곳으로 옮겨 작업을 수행케 하고 있다.

동사는 컴퓨터 소비전력의 3대요소인 전원공급장치, 모니터, HDD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고성능 절전형 반도체와 함께 절전효과가 더욱



뛰어난 그린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콤팩트  
카세트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 김광호)가 차세대 디지털 오디오인 DCC(디지털콤팩트카세트)를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

이 회사가 1년 6개월동안 6억원을 투입, 개발한 이 제품(SDC-300)은 네덜란드 필립스와 일본 마쓰시타사가 '91년 최초로 상품화한 오디오기기로 디지털 테이프에 고음질의 녹화재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DCC는 기존 아날로그 오디오 테이프도 재생할 수 있으며 현행 카세트에는 없는 다양한 표시기능을 채택, 테이프명 곡명 연주자명 등을 문자로 나타내줌으로써 작동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최대 90분의 음악을 녹음할 수 있고 최대 3분이내 원하는 곡을 자동탐색 가능한 이 DCC는 앞으로 아날로그 카셋을 완전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96년 세계적으로 1,000만대, 국내는 5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다기능  
오버레이보드 출시  
(주) 세모

(주) 세모(대표 : 박상복)가 TV튜너와 오버레이기능, 오디오카드와 CD-ROM드라이브 인터페이스까지 통합, 보드 하나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다기능 오버레이보드 「세모 프리비전 SFM-100」을 개발했다.

동사가 멀티미디어 업그레이드용 통합오버레이보드로 개발한 프리비전은 한글 및 영문윈도즈 상에서 플로션 디지털 영상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자체에 122개까지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튜너와 국제표준 방송규격인 NTSC와 PAL, 세삼오디오, NTSC TV규격을 비롯해 VHF와 UHF, CATV 등 대부분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비디오 입출력기능을 강화, S-VHS입력단자를 통해 VCR, LDP, S-VHS, 튜터 등의 영상매체신호를 컴퓨터에 전달할 수 있다.

또 RGB방식의 영상처리방식을 채택해 영상출력이 자연스럽고 영상과 그래픽문자의 오버레이가 가능하며 풀스크린에서 64분의 1크기까지 실시간에 화면을 마음대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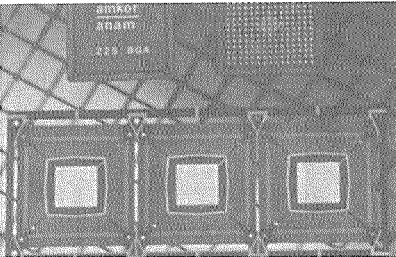
특히 국내최초로 사운드 블래스터와 호환되는 오디오 모듈을 내장, 윈도즈에서 사용할 경우 말하는 계산기, 자동설계 알람시계 등 음악과 음성출력이 가능하다.

이밖에 AT버스 방식의 IDE CD-ROM 드라이브는 물론 SCSI방식의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는 CD-ROM 인터페이스를 내장했다.

고집적 반도체 칩

패키지 개발

아남산업 (주)



아남산업(대표 : 황인길)은 국내 처음으로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대폭 높아진 차세대 패키지 BGA(Ball Grid Array)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BGA는 PCB원판에 핀으로 꼽는 기존의 PGA(Pin Grid Array)와는 달리 반도체 칩에 달린 다리를 없애고 대신 패키지 밑면에 볼을 면 배열해 납으로 녹여 PCB 원판에 붙이는 새로운 패키지다.

이에 따라 PCB 원판에 핀으로 꼽을때는 최고 350핀까지 가능하도록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는 220핀 정도가 고작이었으나 이 방식의 개발로 1,800개 이상의 고집적화가 가능하게 됐다.

이 패키지는 볼 형태의 면 배열이 마치 바둑판처럼 생겨 격자무늬의 표면실장형 패키지라고도 불린다.

이로써 기존의 사각면에 다리가 달린 패키지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최고 60%까지 줄었으며 전기나 열적인 수행능력이 40%정도 향상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후 공정에서의 핸드링 불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테스트 공정이 매우 간편해졌고 기판 부착때의 불량률도 기존 패키지보다 100분의 1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고화질

컬러TV 시판

아남전자 (주)

아남전자(대표 金柱淵)가 브라운관의 평평도를 높여 화질을 향상시킨 슈퍼플랫 컬러TV 등 컬러TV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인다.

이 회사는 또 금성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 최근 금성사로부터 6헤드고급 VCR와 CD 콧세 3개모델을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으로 공급받아 판매를 시작했다.

AV 전문업체인 아남전자는 대형 TV분야에서 금성사, 대우전자 등 가전3사의 추격이 두드러짐에 따라 최근 슈퍼플랫 브라운관을 채용한 29인치 컬러TV 신제품개발을 완료, 이달말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금성사로부터 공급받은 슈퍼플랫 브라운관을 채용한 이제품(CK-2933)은 브라운관의 평평도를 기존제품보다 두배정도 높여 모서리부의 화면찌그러짐 현상을 없애고 화질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영상기기

OEM 판매

(주) 인켈

(주) 인켈(대표 崔錫漢)은 영상사업강화 방안의 하나로 금성사로부터 25인치 컬러모니터TV, 하이파이VCR 3개모델, 21인치 컬러TV 등 5개 영상기기를 OEM공급받아 자사 브랜드로 시판키로 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인켈이 금성사로부터 OEM공급받아 시판에 나설 제품은 AV시스템에 적용되는 25인치 컬러모니터TV(모델명 MNR-2500)와 초소형 컴포넌트에 대응되는 하이파이VCR(모델명

GHV-AV1), 일반 거치형 하이파이VCR 2개 모델, 21인치 컬러TV(모델명 CNR-2183) 등 5개 모델이다.

동사는 모니터TV와 초소형컴포넌트 대응 VCR 등의 경우 자사 AV시스템과 함께 시판에 나서는 한편 컬러TV, 거치형 하이파이VCR의 경우 자사 29인치 컬러TV와 병행해 영상기기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동사는 이와함께 자사가 개발중인 CD-I플레이어의 개발완료 이전까지 당분간 금성사로부터 CD-I 플레이어도 OEM 공급받아 판매를 추진키로 했다.

**CD-I용  
S/W 판매**  
(주) SKC

(주) SKC(대표 安是煥)가 차세대 가정용 멀티미디어인 CD-I를 시판한다.

CD-I는 눈으로 보는 콤팩트 디스크로 플레이어를 TV에 연결,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대화형 첨단 미디어이다.

이번에 SKC가 출시하는 CD-I용 소프트웨어는 유아용 영어교육프로그램인 「신나는 ABC나라」와 「김현식 뮤직비디오」 등 두편이다.

동사는 앞으로 아동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매월 2종류씩 올해말까지 9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FAX 2개 모델  
개발**  
코리아제록스 (주)

코리아제록스(대표 文大源)가 B4 출력과 고품질을 실현한 비즈니스용 팩시밀리 신제품 2개기종(모델명 FAX-7016K/7016M)을 개발했다.

「FAX-7016K/7016M」는 A4는 물론 사무실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B4(전산용지) 규격의 원고까지 자유로운 송·수신을 할 수 있어 송신 전에 축소, 복사하는 번거로움과 A4규격의 FAX처럼 B4규격의 송신 문서를 수신시 깨알같이 축소돼 들어오는 일이 없어 전산용지와 같은 대형원고의 송·수신에 편리한것이 최대장점이다.

이들 신제품은 8도트×15.4라인/mm의 초고해상도와 16단계의 자동농도 조절기능으로 문자나 일러스트, 사진과 같은 그림·문자모드의 완벽한 화상재현 능력을 지니고 있어 점차 높아지는 사용자의 고품위화상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전화·팩스 자동전환기능과 함께 FAX에 부착된 전화기 외에 별도로 1라인 전화기를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2라인 전화접속기능과 최대 10매의 원고까지 연속송신 할 수 있는 자동원고송신기능, 원터치 단축 다이얼 기능, 시각지정 송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전자출판용  
레이저프린터  
개발**  
(주) 큐닉스컴퓨터

큐닉스컴퓨터(대표 張泳默)는 해상도가 600Dpi에 A3용지까지 인쇄가 가능한 전문 전자출판용 한글포스트스크립트 레이저프린터(모델명 QL-BP PSIII)를 개발, 최근 시판을 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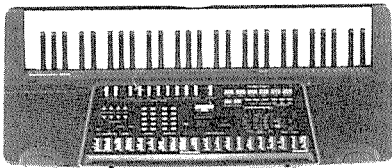
이 제품은 일반 PC는 물론 애플의 매킨토시기종과 WS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650만원. 서체는 약물서체와 화면서체 등을 비롯해 58종이며 서체방식은 외곽선방식으로 글자의 확대·축소도 자유롭다.

**다이나톤,  
고급형 다기능  
전자키보드 선보여**  
한국전자 (주)

국내 최초로 “다이나톤”이라는 브랜드로 전자키보드를 생산한 이래 국내 생산 1위, 수출 1위를 기록하며 다양한 기능과 가격대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KEC는 첨단다기능의 70만원대 고급형 포터블 전자키보드 HS-1000을 개발, 9월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KEC가 이번에 개발한 HS-1000은 최첨단 전자기술인 디지털 음향효과(Digital Reverb Effect) 기능으로 가정에서도 라이브 공연장에서 의 생동감있는 사운드로 연주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피아노와 같이 건반을 누르는 세기에 따라 음의 강약이 조절, 음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감정 표현이 가능한 타건세기 감지(Touch Response) 기능을 채용하고 있다. 더우기 출력부문에서는 고급오디오에서 채택하고 있는 BBS(Bass Boot System : 저음보강회로)와 저음역 확대관을 채용하여 전자키보드에서도 박력있는 저음의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앞으로도 KEC 다이나톤은 수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더욱 정밀한 성능의 첨단 전자키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토리버스  
데크 시판**  
한국마벨 (주)

한국마벨(대표 金淳中)이 카오디오용 오토리버스 테크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나섰다.

이 회사는 지난 1년 6개월간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4억3,000만원과 자체자금 등 7억3,000만원을 투자, 카 오디오용 오토리버스 테크메커니즘(모델명 KM-007)을 개발, 시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오토리버스 제품에 비해 노멀·메탈 테이프를 겸용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선곡장치(APS)를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부품수를 기존의 180개에서 140개로 줄였고, 가격도 일본 수입품에 비해 10% 정도 싸다.

회사측은 현재까지 홍콩에 약 5만대를 수출했으며 올해 20만대 수출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유수의 HDD  
전문업체인 맥스터사  
인수**  
현대전자 (주)

현대전자(대표 鄭夢憲)는 미국 유수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전문업체인 맥스터사(소재 : 산호세 캘리포니아)와 자본 및 경영참여를 위한 의정서를 미국 산호세에서 8월 18일(수)(현지날짜) 체결했다.

맥스터사는 1982년 설립되어 105메가바이트(MB)에서 1.3기가바이트(GB)까지의 다양한 용량의 3.5인치 및 2.5인치 HDD를 생산하고 있는데, 차세대 제품인 1.8인치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FY '93 기준) 총 매출액 14억 4,000만불, 종업원 9,000여 명을 지닌 대기업으로 HDD 분야에서 전세계 시장의 12%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미국 산호세에 본사가 있으며, 산호세와 콜로라도주 롱먼트에 R & D 센터가 그리고 싱가포르에 생산공장이 있고,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국제적인 기업이며, 자회사로 광자기 디스크드라이브의 공급 및 광학기술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맥스터(Maxoptix Corp)사가 있다.

동사는 이번 맥스터사의 경영참여를 통해서 HDD의 주요부품인 헤드, 모터, 미디어, 주기판 등에 대한 축적된 기술 및 각종 특허를 별도의 로열티 지불없이 공유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단계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배양하여, 관련 부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 컴퓨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HDD에 사용되는 반도체 특히 ASIC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자사 반도체 제품의 응용확대도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내 자회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광자디스크 드라이브(MODD)사업을 맥스터사의 광학기술과 유통망을 통해 대폭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맥스터사는 현대전자의 자본 참여로 신규투자 및 경영합리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강력한 사업추진력과 양사의 상호보완적 사업분야로 새로운 전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대방동 사옥  
신축공사 착수**  
한국컴퓨터 (주)

한국컴퓨터(대표 韓洪燮)는 지난 8월 16일 현대건설과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신대방동 사옥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대지 1,107평에 연면적 15,846평으로 건설되는 신사옥은 지하 7층 지상 25층의 주상 복합건물로, 오는 '96년 6월 15일까지 총 34개월간 공사기간을 걸쳐 '96년 6월 16일에 완공될 예정이다.

